

# בֵּית סוּפֵר (책의 집)

##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한동일 씀, 인티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대하면 거룩한 것으로 대할 것이고, 거룩하게 대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대할 것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요묘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과거에 속하려는 나와 새로운 길을 가려는 나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몸부림을 겪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함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 모습을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우리 각자의 신성함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제51권 27호

2025년 7월 6일(성령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일과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모임 ① 정기 제직회: 낮 예배 후, 본당
3. 기쁨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30분, 본당
4. 식기 세척기 사용 안내: 작동 전 사용 설명서를 꼭 확인해주세요.
5. 오늘은 '이사줍기' 헌금 주일입니다.
6.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찬송 183장의 시인은 성령의 단비(showers of blessing)를 갈망합니다.  
불별더위에도 영적 독서와 일상 기도로 새사람이 되기를 힘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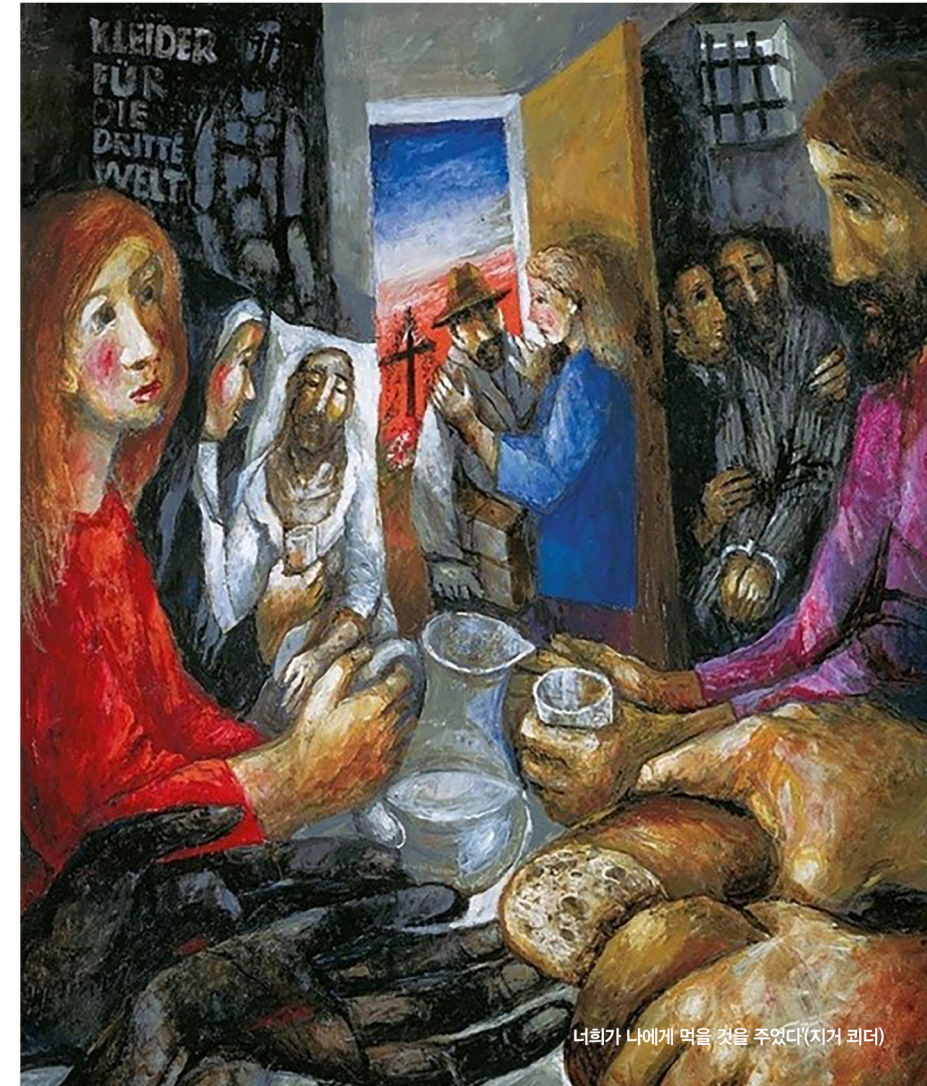
##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선교회	연령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본당	아브라함	남성교우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소예배실	에스터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예배실	드보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전 9시	소예배실	마리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전 9시	청소년부실	하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061-691-7315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저 쿠퍼)

# 주일예배 (성령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b>주일 오전 11시</b>	<b>인도 : 송 혁 목사</b>
경배와 찬양	함께
* 입례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시편 66:1-4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광송	61장(2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시교독	시편 30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사찬송	421장(2절 후, 간주)
기도	김병곤 장로
*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6:14-16(신약 307쪽)
찬양	빈 들에 마른 풀같이
말씀과 성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결단의 찬송과 기도	620장(2절 후, 간주)
봉헌	함께
성도의 교제	함께
* 교제의 찬양	382장(4절)
* 축도	송 혁 목사

\* 포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다음 주기도 - 장세중 장로

- \* 7월 안내위원 : 배순희, 배유희, 김수영, 서영숙
- \* 7월 헌금위원 : 이상철
- \* 7월 주방봉사 : 2, 5구역

## 생명의 말씀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 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14-16/메시지성서, 공동번역개정)

## 기쁨 주일 (찬양예배)

<b>오후 1시 30분</b>	<b>인도 : 송 혁 목사</b>
기도	박종철 집사
오늘의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8월 기도 - 이황재 집사

## 수요기도회

<b>오후 7시</b>	<b>인도 : 이기도 목사</b>
찬양	함께
기도	박종애 권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3:14-21(신약 402쪽)
말씀선포와 기도	미지근한 신앙생활
축도	이기도 목사

## 다음 주기도 - 김희숙 집사

## 일상기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10일(목)	요한계시록 6.1-17
7일(월)	요한계시록 3.14-22	11일(금)	요한계시록 7.1-17
8일(화)	요한계시록 4.1-11	12일(토)	요한계시록 8.1-13
9일(수)	요한계시록 5.1-14	13일(주일)	요한계시록 9.1-12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 지난 주일 말씀

##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갈라디아서 5.1, 13-25)



[성서일과표/열왕기상 19.11-21, 시편 16.1-11, 갈라디아서 5.1, 13-25, 누가복음 9.57-62]

이번 주 성서일과표를 켜는 열쇠 말씀은 '결단(決斷)'입니다. 터질 결자와 끊을 단자로 이루어진 한자로, '제방이 무너져 넘쳐흐르는 물을 끊어내는' 행위를 의미하지요. 결단이란 단어가 품고 있는 단호함과 긴박감이 느껴지시나요? 당장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물바다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복음서 본문부터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고 실천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말은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른 뒤 제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그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말과 같지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될 테니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우선순위로 여기는 일들을 정리한 다음에 오겠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실재로는 예수의 제자가 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었지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소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할당하지 않다." 쟁기질은 하나님 혹은 진리를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한 영적 수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 순배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기에, 일상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인 셈이지요.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사를 영적 결단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자신의 이를 그대로 평생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해 거저 신들과 싸웠습니다. 그 정점에 비할 세력과의 대결인 갈멜산의 승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결정적 승리 후 크게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예언자의 삶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가 흔들리 이유는 자신이 보기에 대부부의 예언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을 반면, 바알 세력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평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른 엘리야를 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격려하신 후,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와 마주친 엘리야는 자신의 겂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후계자로 세운다는 뜻이지요.) 그러자 겂옷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던 엘리사는 짐으로 가서 소를 잡고 멍에를 장작으로 삼아 가족과 이웃을 대접한 후 부모와 작별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소와 멍에를 불태운 겁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소와 멍에를 태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할 마음이 있는지요?

이제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굳게 서십시오! 그 누구도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바울은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에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율법주의란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자기 연민의 태도를 말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힘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로부터의 탈선이고 그 끝은 부패일 수밖에 없지요. 미국이 힘으로 이란의 기름을 쥐기 위해 핵 시설을 폭격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알리는 대국민 연설 끄트머리에서, "미국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중동과 이스라엘과 미국을 축복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이지요!

이번 폭격에만 30조 원이 쓰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전쟁을 통해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고, 신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거룩한 전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주 만에 휴전선 인근 마을에 다시 찾아온 평화를 보십시오. 30조분의 1도 쓰지 않고 말이지요. 힘으로 얻거나 지키는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유희와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무리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믿는 길로 가는 지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길도 매우 험수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나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 위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집은 비와 바람과 홍수에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살람.